

社說

선거출마자 市정책 마련해야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 가는 곳마다 선거 이야기가 최대 이슈로 등장한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은 거의 없다. 누가 어느당 공천을 받았느냐 혹은 누가 유력하다니 말은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선거란 무엇인가?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을 포함한다.

요즘 포천시 예비후보나 도의원 혹은 시의원 후보들은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본인들은 공천과 당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참여정부는 여러분야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

거출마를 결심했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포천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대부분 외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같은 포천지역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같은 후보예정자들의 활동에 유권자나 시민들은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후보자들은 시민과 유권자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정책구상도 중요하다.

이같은 후보예정자들의 활동에 유권자나 시민들은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사전 불법선거운동 상황실 開所

포천경찰서 5·31 지방선거 선거상황실 현판식



지난 3일 포천경찰서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담당하게 될 선거처리상황실 현판식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3일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앞에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동안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선거처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영배 포천경찰서장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경찰서는 오는 5월3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고품·향음, 편의제공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과와 정보정보과가 합동으로 평상시 선거처리상황실을 운영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se@naver.com

부면장 제도 운영된다

일선 공무원 환영하지 않는 입장

포천시 읍면지역에 부면장과 부면장 제도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 각 읍·면은 총무업무에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부읍·부면장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하기 때문에 승진이 불공인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읍장이나 면장이 장기출장을 제외하고는 대신할 업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부서관 예우 대폭 확대

임용 및 근속진급 법률 명시

국방부는 병력위주의 군 구조에서 정보·과학기술 중심의 군구조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에서 부서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2020년까지 부서관 규모를 1.7%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의원은 "군 간부 중 하위직인 하사·중사는 근속진급제도가 없어 타 공무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여 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소속 한나라당 고조흥의원(포천·연천)이 지난 6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공공발달을 요절한 상태여서 부서관의 예우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

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조흥의원은 "군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보거나 현행법의 체계를 보더라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의원은 "군 간부 중 하위직인 하사·중사는 근속진급제도가 없어 타 공무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여 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불우이웃돕기 일일찾집 계획

주부명예기자단 임원단회의

본지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지난 4일 오후 7시 최호열 발행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열 발행인은 인사발령을 통해 "포천신문은 16만 포천시민의 신문으로 특정인을 위한 신문이 아님"을 강조하고 "주부명예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으로 14개 읍면동의 주요소식이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장은 "그동안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물론 다양한 기사발굴 및 제보활동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단은 오는 5월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4일 최호열 발행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불우이웃돕기 일일찾집을 계획키로 의의하고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부명예기자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 기고

直言을 바라는 皇帝

페르시아의 황제 코스로스는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병석에서 일어나 뒤 어느 날 모든 신하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했다. "경들은 내가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지 거침없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그러면 그 보답으로 내가 값진 선물을 주겠소."

모든 신하들은 황제 앞에서 온갖 아첨을 다 펼쳤다. 그러나 오직 한사람 현자 엘렘은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했다. "황제 폐하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돈이나 선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폐하께서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즉,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폐하께서도 결점이 있고, 실수를 하고 죄도 범하고 계십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궁전을 다시 짓고 정장을 자주 일으켜 국고를 많이 낭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엘렘은 서슴없이 황제에게 고했다. 황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말했다. "그밖에 더 할 말 없소?" "또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굶주리고 힘에 겨워하는 것을 너무

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폐하께서는 신하를 등용하실 때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실에 흘러 아까운 인재를 많이 잃고 계십니다."

이렇게 엘렘은 평소 왕에게 품고 있던 불만을 거침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제는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한 얼굴 표정으로 엘렘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보석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몰려와 황제에게 고하였다. "폐하, 폐하께서 어제 저희들에게 나누어주시는 보석이 모두 가져왔습니다. 폐하를 속인 그 보석 상인을 잡아와 마땅히 교수형에 처하십시오. 이 황제 폐하가 고했다. 황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말했다. "그밖에 더 할 말 없소?" "또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굶주리고 힘에 겨워하는 것을 너무

한 엘렘에게는 정승이라는 최고의 벼슬을 주었다. 황제의 지도자다운 재치와 유머로 그 나라의 공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하여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옛말에 아비와 시비를 가리는 아들이 있는 집안과 임금은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한 얼굴 표정으로 엘렘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잠시 장내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생각에 잠겨있던 황제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약속한대로 그대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겠소. 단 엘렘 경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보석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몰려와 황제에게 고하였다. "폐하, 폐하께서 어제 저희들에게 나누어주시는 보석이 모두 가져왔습니다. 폐하를 속인 그 보석 상인을 잡아와 마땅히 교수형에 처하십시오. 이 황제 폐하가 고했다. 황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말했다. "그밖에 더 할 말 없소?" "또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굶주리고 힘에 겨워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거침없이 정직하게 충언을



이 중 익 민주적합법지원회 포천시협의회장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the editorial office and advertising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 뉴스' and '포천신문은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 along with a detailed subscription table.